

# 간호대학생의 SNS 중독경향성, 자아존중감 및 대인관계문제간의 관계

최준영\*, 홍민기\*, 박정민\*, 박지원\*, 박예지\*, 최현주\*\*  
\*가야대학교 간호학과 학부생, \*\*가야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연구배경]** 우리나라 대학생의 92.4%가 친밀한 관계 형성을 맺고 유지하는 수단으로 SNS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SNS는 사회적 면대면 관계나 물리적인 거리와 관련한 스트레스 없이 쉽게 접근이 용이하며 친구 관계를 유지 및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SNS를 통한 대인 관계 유지에 더욱 집착하게 되고 나아가 중독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 SNS 중독경향성은 SNS를 이용하고자 하는 동기와 사회불안이 높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울, 자아존중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가상세계를 이용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SNS 중독경향성이 높을수록 대인관계에 있어 소극적으로 대처하며 타인으로부터 거절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과 동시에 그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로 인해 더욱 더 중독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고되고 있다.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SNS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세대이면서 대상자와의 치료적 대인관계가 중요한 과업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SNS 중독경향성, 자아존중감 및 대인관계문제의 정도를 파악하고 그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연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게 자기기입식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연구표본은 현재시점까지 SNS활동을 1년 이상 지속하고 있는 일개 종합대학 간호대학생 200명이었으며, 자료수집기간은 2021년 5월 22일부터 5월31일까지였다. 분석은 IBM. SPSS. WIN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총200부중 190부가 회수되었고, 응답이 불성실한 자료를 제외한 160부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SNS 중독경향성은  $2.09 \pm 0.04$ 점(4점 만점), 자아존중감은  $3.50 \pm 0.04$ 점(4점 만점), 대인관계문제는  $2.16 \pm 0.05$ 점(5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간호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SNS 중독경향성, 자아존중감, 대인관계문제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SNS 중독경향성만 성별, 접속 횟수, 최대사용시간, 평균사용시간에서 차이가 있었다. 여성이 남성보다, 접속횟수 30회 이상이 미만보다, 최대사용시간 7시간 이상이 미만보다, 평균사용시간 10시간 이상이 4시간 미만보다 SNS 중독경향성이 높게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의 SNS 중독경향성은 자아존중감과 부(-)적 상관관계( $r = -.300, p = .001$ ), 대인관계문제와는 정(+ )적 상관관계( $r = .494, p = .001$ )를,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문제는 부(-)적 상관관계( $r = -.635, p = .001$ )로 나타났다.

**[주요어]** SNS 중독경향성, 자아존중감, 대인관계문제, 간호대학생

Correspondence to : Choi hyun ju 051-330-1176 / [pretty273@hanmail.net](mailto:pretty273@hanmail.net)

Presenter : Choi hyun ju